

아프리카 지역 위험요인의 분석: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제출문

외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아프리카 지역 위험요인(risk factor)의 분석: 국가 실패와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정책용역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한인택 (책임연구원)

- 이 연구는 2016년 외교부 정책용역연구로 수행한 것입니다.
- 보고서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결과임을 밝힙니다.

<목차>

1. 서론
 2. 전 세계적 위협요인 수준과 추이
 3. 아프리카와 타 지역의 위협요인 비교
 4. 아프리카 소지역별 위협요인 수준과 추이
 5. 아프리카 내 위협요인의 추이와 구성: 국가 간 비교
 6. 아프리카 내 위협요인의 추이와 구성: 국별 분석
 7. 결론 및 요약
- 부록
- 1) 테러대비 재외공관 안전강화 방안
 - 2)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의 인과관계 탐색

1. 서론

아프리카에 관한 정책연구의 키워드는 ‘협력강화’이다.¹⁾ 예를 들어 행자부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PRISM)에서 “아프리카”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외교부 정책연구를 조회하면 2016년 4월 19일 현재 총 10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도를 제외하면 대개는 한-아프리카 협력강화를 그 내용이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수립에 관한 연구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한-아프리카 간 협력의 증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프리카에 관한 외교부 정책연구는 모두 협력강화를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리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외교부의 정책연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타 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도 대다수가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내용이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생각하면 정책연구의 키워드가 ‘협력강화’가 된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협력강화’가 정책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간의 반복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아프리카 간 협력이 부진하였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만약 한-아프리카 간 협력이 왕성하였다면 굳이 각 부처에서 계속적으로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연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기대만큼 왕성하지 않다면 이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때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즉, 협력이 왜 우리의 희망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와 방법을 연구에 도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한-아프리카 협력이 기대보다 부진한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상존하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프리카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사이에서조차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분명히 우리와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아프리카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쪽에서 협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²⁾

아프리카는 광대하고 다양성이 높은 대륙이다. 무려 54개국 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자연환경에서부터 종족과 종교에까지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광

1) 이에 반해 아프리카에 관한 학술연구는 훨씬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다루고 있다.

2)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크게 늘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우리보다 적게 위험요인에 직면해서가 아니다.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은 한국의 기업이나 중국의 기업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이다. 중국의 진출에 대한 아프리카 현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가설도 가능하겠지만,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현지에서의 보고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사업의 증가는 현지에서의 중국과 협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보다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아프리카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즉 협력의 ‘공급’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와 달리 시장경제이고 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기업과 국민의 아프리카 진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와의 협력에 대한 현지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도 이 점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아프리카와 협력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의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대응전략이다.

대함과 다양함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해 일반화시켜 말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험요인의 경우도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프리카 전역이 획일적으로, 그리고 항상 위험한 것이 아니다. 국가별·시기별로 위험요인의 수준도 다르며, 위험요인의 유형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마치 하나의 개체(entity)인 것처럼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도 발견된다.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관하여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려는 충동을 극복하고 그 다양성과 변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도 가능해지고, 따라서 협력의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잘 파악하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험요인을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위험요인을 몰라서 대처하지 못할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

아프리카 내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프리카 내 위험요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가 늘어나야 한다.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축적 없이는 아프리카는 위험한 대륙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불식되기 힘들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은 open-source data를 사용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유형화하고, 위험요인의 국가별, 시기별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여 아프리카 지역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요인의 하나인 테러리즘을 예로 들자면, 미 국무성의 경우 매년 전 세계 각지의 테러리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보고서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舊 『Patterns of Global Terrorism』)로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자국의 정부, 기업, 국민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의 활동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對 아프리카 외교나 경제협력, 교류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국민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pen-source data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위험요인: 유형, 정의, 데이터

위험요인(risk factor)이란, 목적하고 있는 가치의 추구나 유지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각기 중요한 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위험요인에 집중하고자 한다.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이다.

국가실패

국가실패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가가 붕괴되는 ‘리스크’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국가실패는, 정상적인 국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관련하여서도 불가피하게 모호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언급할 몇몇 계기를 통해서 국가실패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노력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아마도 경제적 위험요인이겠으나 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IMF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민간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국가실패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소련의 붕괴로서, 구소련권 국가의 잇따른 붕괴에 대해 사전 예측도, 사후적 대처도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가실패에 대한 연구를 촉발한 또 다른 중요한 계기는 911 사태로서, 멀리 떨어진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와해와 사회적 혼란도 테러 집단의 발흥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자국의 핵심적 이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국가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아랍의 봄' 때문이다. 독재권력 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것처럼 보이던 중동 지역에서 갑자기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그 동안 수면 하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중동국가의 불안정성, 변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려는 노력이 증가하였다.³⁾

정부기관에서부터 대학, 싱크탱크, 잡지사까지 이르는 여러 기관에서 국가실패(state failure)나 국가의 취약성(fragility, weakness, vulnerability)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들이 작성한 지수들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방법론은 다르지만, 각 지수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려는 시도이고, 대개의 경우 지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지수중에서 Foreign Policy誌 / Fund for Peace가 작성한 Failed States Index를 사용하고자 한다.

3) 그동안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나 붕괴시기, 붕괴되는 양식을 두고 국내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실패의 연구는 유행처럼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Failed States Index의 3개 영역 / 12개 지표

Social Indicators	Mounting Demographic Pressures
	Massive Movement of Refugees o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reating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Legacy of Vengeance-Seeking Group Grievance or Group Paranoia
	Chronic and Sustained Human Flight
Economic Indicators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long Group Lines
	Sharp and/or Severe Economic Decline
Political Indicators	Criminalization and/or Delegitimization of the State
	Progressiv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Suspension or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and Widespread Violation of Human Rights
	Security Apparatus Operates as a "State Within a State"
	Rise of Factionalized Elites
	Intervention of Other States or External Political Actors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실패지수는 사회, 경제, 정치 총 3개의 영역에서, 인구 압력, 난민, 지속적 피난, 집단적 불만, 불평등 발전, 빈곤과 경제적 쇠락, 국가의 불법화/비정통화, 공공서비스의 악화, 법치와 인권의 악화, ‘국가 내 국가’로서 공안조직의 작동, 지도층의 파벌화, 외부의 개입과 관련된 12개의 지표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각 지표마다 최저 0점, 최고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고, 낮을수록 취약성이 낮다. 따라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Failed States Index Score는 점수가 높아져서, 이론적으로는 최소 0점에서부터 최대 120점까지 나올 수 있다. 왜 국가실패지수 작성을 위해 3개의 영역에서 12개의 지표를 측정해야 하고, 각 지표는 왜 단순하게 합산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2016년 중반을 기준으로 국가실패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지수의 값은 18.8이고, 국가실패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소말리아로서 지수의 값은 114이다. 2016년 중반을 기준, 한국의 국가실패지수는 36.1이고, 북한의 국가실패지수는 93.9이다.

테러리즘

테러리즘은 보다 미시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요인으로, 정부나 기업도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들에게 더 민감하고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위협요인이다. 예를 들면 여행자들은 정치적으로 부패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지 않더라도, 여행자를 상대로 하는 테러공격이 발생하는 나라의 방문은 꺼릴 수 있다. 좀 단순화하자면, 국가실패는 정부-아울러 기업-에게 테러리즘은 국민들에게 보다 민감하게 인식되는 위협요인이다.

국가실패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즘도 모호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다. 정확히 무엇이 테러인지, 그리고 테러는 전투행위나 독립투쟁, 저항 등 다른 종류의 행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답은 없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해 연구가 가능할 수준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The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START)에서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Global Terrorism Index 등의 지수가 작성되고 있다.⁴⁾

이 연구에서는 FSI score와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위협요인의 유형과 추세를 파악하고,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 전 세계적 위협요인 수준과 추이
- 아프리카 지역과 타 지역의 위협요인 비교
- 아프리카 세부 지역의 위협요인 수준과 추이
-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위협요인 추이와 구성
- 국가실패 관련변수와 테러리즘 관련변수 간 관계의 분석

4) 김은영, 박선영,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 START 센터의 모범사례의 소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5호 (2013)

2. 전 세계적 위험요인 수준과 추이

(1) 전 세계적 국가실패지수 추이

전 세계적 국가실패지수 추이 (2006-2016)

Year	Mean	Std. Dev.	Min.	Max.	Obs.
2006	70.7	24.59973	16.8	112.3	145
2007	70.4	23.10652	17.1	113.7	176
2008	70.8	23.27165	16.8	114.2	176
2009	71.9	23.26973	18.3	114.7	176
2010	71.7	23.23561	18.7	114.3	175
2011	71.0	22.86515	19.7	113.4	176
2012	70.6	22.66144	20	114.9	176
2013	70.2	23.52674	18	113.9	176
2014	70.3	23.11432	18.7	112.6	176
2015	70.2	23.99926	17.8	114.5	178
2016	70.3	24.22098	18.8	114	178

위의 표는 국가실패지수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조사 대상국의 국가실패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기록한 것이다. 그간 언론에서는 국가의 취약성이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도를 해왔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국가실패지수의 전 세계적 평균값은 70, 71 전후, 표준편차는 23 전후, 최소값은 18, 19 전후, 최대값은 113, 114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만약 이들 수치를 신뢰할 수 있다면 국가의 취약성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 표준편차나 최소값, 최대값도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국가실패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

(2) 전 세계적 테러리즘 추이

전 세계적 테러발생 건수 및 국가 수 (2006-2015)

연도	테러발생 건수	테러발생 국가 수
2006	2751	71
2007	3241	76
2008	4788	91
2009	4722	82
2010	4819	72
2011	5065	75
2012	8491	81
2013	11999	92
2014	16818	98
2015	14806	94

위의 표는 같은 기간 중 테러의 발생 건수와 테러가 발생한 국가 수를 2016년 판 Global Terrorism Database를 사용하여 집계한 것인데, 국가실패지수와는 확실히 다르게 테러의 발생 건수는 조사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 2751건이었던 테러가 2014년에는 1681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14806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테러가 발생한 국가도 2006년 71개국에서 2014년에는 98개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94개국으로 집계되었다.⁵⁾

전 세계적 테러 사망자 및 부상자 수 (2006-2015)

연도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06	9359	15552
2007	12833	22430
2008	9092	18797
2009	9270	19128
2010	7719	15780
2011	8198	14618
2012	15431	25500
2013	22225	37643.5
2014	43550	40989.5
2015	38422	43495

* 사망자 수나 부상자 수를 표시하는 데 소수가 사용되는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Global Terrorism Database Codebook 47 페이지를 참조.

2016년 판 Global Terrorism Database에 따르면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06년 9359명에서 2014년에는 43550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38422명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4년에 사망자가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약 130만 명). 한편 테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6년 15552명에서 2015년 43495명으로 3.4배 증가하였다.

사망자 중 일반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종교적 표적에 대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4년에 일반인이 테러로 사망한 경우는 전년에 대비해 172% 증가한 데 반해 종교적 표적에 대한 테러로 인해 사망자 수는 2013년 대비해서 11% 감소하였다.

한편 Global Terrorism Index 보고서의 조사대상이 된 162개국 중 약 60%에 해당하는 95개국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전무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서방국가에서 발생한 테러 사망자는 9.11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테러 사망자의 0.5%에 불과하고, 9.11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해도 2.6%에 그친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테러는 빈도나 규모에서 있어서 급증세를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5) Global Terrorism Database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업데이트 시 직전년도의 테러리즘 정보를 새로이 입력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를 수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database의 연도별로 같은 해에 해당하는 테러리즘 정보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아직도 특정 국가군에 집중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아프리카와 타 지역의 위험요인 비교

(1) 지역별 국가실패지수 추이

아래 표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들의 국가실패지수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1) 지역별로 국가의 취약성이 차이가 나며 (2) 그러한 차이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국가실패지수 평균 (2006-2015)

	북미	중미	남미	호주·오세아니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서유럽	아프리카
2006	43.6	76.7	66.5	42	61.2	76.5	85.9	83.3	79.2	63.7	30.5	85
2007	43.8	71.3	67.6	63.4	61.1	77.8	85.1	83	74.7	62.7	31.2	84.7
2008	43.8	70.8	67.7	63.7	61.2	77.7	86.7	83.2	75.8	62.2	31.5	85.3
2009	45.7	71.5	68.7	63.6	63.5	79.3	87.9	85	76.5	62.4	32.9	87.1
2010	46.4	71	68.4	63.7	62.7	79.3	87.6	84	76.3	61.5	33	87.2
2011	45.9	70	67.8	63.7	61	78.1	86.1	82.4	74.4	60	33.2	86.9
2012	45.1	68.6	67.1	63.6	62.7	75.3	85.0	80.7	75.4	58.6	33.3	87.1
2013	44.2	68.2	66.1	62.9	61.1	73.9	85.1	79.8	75.6	57.2	31.9	87.8
2014	44.6	67.8	65.9	63.4	60.8	74.5	85.0	79.2	75.7	56.8	32.9	87.9
2015	42.7	66.5	65.4	62.1	60	75.8	84.6	77.9	76	56.7	31.2	88.6

* 호주·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2006년 조사에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만 포함되었으나 2007년 조사에서부터는 피지, 미크로네시아, 솔로몬 제도, 사모아까지 포함되고 있다. 호주·오세아니아 지역 평균 국가실패지수 값이 2006년 42에서 2007년 63.4로 증가한 것은 조사대상국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 중동 지역의 평균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터키의 국별 국가실패지수의 산술평균.

***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은 이집트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54개 국가의 국별 국가실패지수의 산술평균.

조사기간 중 아프리카 지역 국가실패지수의 평균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남아시아의 국가실패지수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12개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높은 국가 취약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평균값도 조사기간 중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06년 85 → 2015년 88.6). 이러한 결과만을 본다면 아프리카가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가 전복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한편 중동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취약성을 보이며, ‘아랍의 봄’이 시작된 이후 중동 지역의 국가실패지수 평균값은 점차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2011년 74.4→2015년 76).

(2) 지역별 테러리즘 추이

지역별 테러발생 건수 (2006-2015)

	북미	중미	남미	호주·오 세아니 아	동아 시아	동남 아시 아	남아 시아	중앙 아시 아	중동	동유 럽	서유 럽	아프 리카
2006	15	5	50	2	2	272	938	6	1022	70	98	271
2007	19	4	47	1	0	364	981	4	1253	62	72	434
2008	31	0	144	8	25	513	1743	36	1424	209	163	491
2009	15	9	159	1	8	562	1946	31	1251	165	181	393
2010	24	1	148	1	1	473	1978	9	1361	260	133	432
2011	12	1	106	0	4	353	2135	9	1623	198	93	533
2012	35	1	133	0	4	585	3800	12	2260	173	188	1307
2013	31	14	179	1	14	1186	4606	7	3886	165	253	1648
2014	34	5	281	9	42	1075	4990	9	5805	958	214	3418
2015	62	1	175	7	27	1062	4568	9	4797	684	321	3093

* 중동 지역 통계에는 West Bank & Gaza Strip이 포함됨

이 표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1) 지역별로 테러발생 수가 커다란 차이가 나며, (2) 그러한 차이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들어 테러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것은 대부분 중동,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테러의 발생 건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테러의 발생 건수에 있어서는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이 1, 2위를 다투며, 아프리카의 경우는 한동안 중동이나 남아시아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3위였다가 최근 들어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아프리카에서는 테러발생 건수가 271건에서 309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이 기간 중 테러발생 건수의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물론 증가율로만 보면, 동아시아가 2006년 2건에서 2014년 42건, 2015년 27건으로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율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를 앞지르나 절대 건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테러발생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국가취약성과 테러리즘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아프리카가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아프리카의 국가실패지수 평균은 다른 지역의 국가실패지수 평균에 비해 높으며—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가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테러리즘의 발생건수도 남아시아와 중동을 이어 3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남아시아와 중동의 테러리즘 발생 건수에 접근하고 있다.

지역 vs. 소지역 vs. 국가

하지만 아프리카를 남아시아 및 중동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는 54개국이 위치한 광대한 대륙이며, 2014년 현재 약 11억 명, 세계전체인구의 약 15%가 거주하

고 있다. 이에 비해 남아시아에는 9개국(기준에 따라서는 8개국)이 위치하고 있고, 중동에도 10여국 남짓한 국가가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 수, 면적, 인구수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를 남아시아나 중동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테러의 경우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 수와 인구,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나 중동보다 테러의 발생이 작은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사실이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프리카의 광대함,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마치 단일한 지역처럼 보는 사고방식이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깊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예컨대 Boko Haram에 의한 테러공격이나 납치-이 마치 아프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인식하는 경향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비교는 아프리카의 ‘소지역’을 남아시아나 중동과 비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5년 판 Global Terrorism Index에 의하면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78%, 테러공격의 57%가 이라크,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7,512명으로 전년 대비 300%로 증가하여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테러집단 별로는 Boko Haram의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가 최대로,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17% 증가하여 6,644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하여 ISIS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4년에 6,073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테러리즘에 관한 한 유의미한 분석단위는 대륙이나 지역, 소지역보다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테러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수의 집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테러리즘이 빈발한다’는 표현보다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집단에 의해-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서 Boko Haram에 의해-테러가 빈발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간 아프리카 내 테러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자료가 그간 흔치 않았다는 것이다.

4. 아프리카 소지역별 위험요인 수준과 추이

(1) 아프리카 소지역별 국가실패지수 비교

앞에서 국가실패지수의 비교를 통해서 아프리카는 조사대상이 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즉 국가취약성이 제일 높은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대륙으로서의 광대함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히 아프리카를 구성하는 소지역별로 국가실패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UN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를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나누고 각 소지역의 국가실패지수 평균을 구한 것이다.

아프리카 소지역별 국가실패지수 (2006-2015)

	Northern	Central	Western	Eastern	Southern
2006	81.7	92.5	85.5	86.8	64.4
2007	81.6	91.4	85.4	85.4	71.5
2008	81.8	92.3	86	85.9	72.6
2009	82.7	93.2	87.6	88.3	75.2
2010	82.4	93.4	88.1	88.4	75.2
2011	81.4	92.4	88.4	88.1	74
2012	85.5	91.7	88	88.9	73.4
2013	85.9	92.3	89.7	89.3	73.4
2014	86.6	92.5	90.2	88.1	73.4
2015	87.7	92.6	90.7	89.3	73.4

* UN에 의한 아프리카 소지역 구분

- Northern Africa: Algeria, Egypt, Libya, Morocco, Sudan, Tunisia
- Central Africa: Angola,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quatorial Guinea, Gabon, Republic of the Congo, Sao Tome and Principe
- Eastern Africa: Burundi, Comoros, Djibouti, Eritrea, Ethiopia, Keny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Mozambique, Rwanda, Seychelles, Somalia, South Sudan, Uganda, Tanzania, Zambia, Zimbabwe
- Western Africa: Benin, Burkina Faso, Cabo Verde/Cape Verde, Cote d'Ivoire/Ivory Coast, Gambia, Ghana, Guinea, Guinea-Bissau, Liberia, Mali, Mauritania,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Togo
- Southern Africa: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Swaziland

** 남아프리카의 국가실패지수 평균이 2006년 64.4에서 2007년 71.5로 급증한 이유는 2006년에는 Botswana, Namibia, South Africa 3국만 조사 대상이었다가 2007년부터 Lesotho, Swaziland 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표에 따르면 같은 아프리카라도 소지역별로 국가 취약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버금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국가 취약성이 제일 높은 고 위험 지역이다. 흥미로운 현상은 아랍의 봄 이후 북 아프리카의 국가실패지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앞서 중동 지역에서 아랍의 봄을 전후로 국가실패지수가 증가하였는데(2011년 74.4→2015년 76), 북 아프리카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다(2011년 81.4→2015년 87.7). 국가실패지수가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국가의 취약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랍의 봄의 후유증은 중동보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내 각 지역 평균 국가실패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중동뿐 아니라 남아시아보다도 국가취약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취약성에 관한 한 아프리카는 소수의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가가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2) 아프리카 소지역별 테러리즘 비교

아프리카 소지역별 테러발생 건수 (2006-2015)

	Northern	Central	Western	Eastern	Southern
2006	181	17	41	30	2
2007	155	20	76	181	2
2008	143	31	99	214	4
2009	136	65	61	130	1
2010	130	37	76	189	0
2011	77	22	191	243	0
2012	191	29	661	422	4
2013	705	46	417	467	13
2014	1269	271	791	1067	20
2015	1316	298	811	665	3

이 표는 앞에서처럼 UN의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를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나누고 각 소지역의 테러발생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같은 아프리카라도 소지역별로 테러발생 건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테러발생이 대단히 적고, 중앙아프리카도 테러발생이 상대적으로 낮다.⁶⁾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서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분포는 테러발생 횟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에 관한 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소지역들이 위험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아울러 아프리카가 ‘원래부터’, 또는 ‘항상’ 테러 때문에 위험한 것도 아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테러가 증가하게 된 것은 2012년 전후이다. 각 소지역에서 2012년을 경계로 해서 테러가 급증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아프리카에서는 테러발생 건수가 271건에서 309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급증하

6) 중앙아프리카의 경우 테러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가 취약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 위험 지역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였다.

아프리카의 테러가 국제적으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프리카의 테러는 지리적으로 특정 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최근 몇 년간에 급증하였다. 아프리카 ‘전역’이 테러로 인해 위협한 것이 아니며 ‘항시’ 테러로 위협했던 것도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러의 지리적 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예컨대 북아프리카는 예나 지금이나 테러가 많이 발생한다), 테러의 시간적 분포는 최근 급변하였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테러와 관련하여 지리적 분포의 불가변성, 시간적 분포의 가변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소지역별 국가실패지수 평균 vs. 테러발생 건수 (2015년 기준)

	Northern	Central	Western	Eastern	Southern
국가실패지수	86.6	92.5	90.2	88.1	73.4
테러발생 건수	1316	298	811	665	3

이 표는 앞서 보았던 소지역별 국가실패지수 평균과 테러발생 건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국가 취약성이 가장 높은 중앙아프리카에서 테러발생 건수가 298로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 취약성이 중앙아프리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양호했던 북아프리카에서 테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가실패지수뿐만 아니라 각 소지역 내 국가 수와 인구 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겠으나 국가취약성과 테러리즘 간의 관계가 기대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프리카 소지역의 국가실패지수와 테러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가실패지수 소지역 평균은 남아프리카 소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전반적으로 국가취약성이 높은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과히 틀린 지적이 아니다.
- 테러발생 건수의 경우 소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지역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나 테러발생 건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테러발생에 관한 한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으며,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소지역이 안정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 테러발생은 2012년을 전후로 모든 소지역에서 급증하였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테러의 위험이 많았다거나 미래에도 아프리카에 테러의 위험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테러의 발생이 많지 않았고, 테러의 발생은 위치가 지리적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시간적으로는 높은 가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5. 아프리카 내 위협요인의 추이와 구성: 국가 간 비교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 판 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78%, 테러공격의 57%가 이라크,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1국만이 포함된 것이다. 나이지리아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7,512명으로 전년 대비 300%로 증가하여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테러집단 별로는 Boko Haram의 테러에 의한 사망자 수가 최다로,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17% 증가하여 6,644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대륙’이나 ‘지역,’ ‘소지역’보다 ‘국가’가 테러리즘의 현황이나 추세를 분석하는 데 더 유의미한 단위일 수 있다는 점이다.

(1) 국가 간 국가실패지수 비교

아래의 리스트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국가취약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국가기능의 마비나 국가의 붕괴 리스크가 높다.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실패지수는 2015년 기준 평균 88.6에 최고 114.5, 최저 45.2로 국가 간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실패지수 (2015년 기준)

South Sudan	114.5
Somalia	114
Central African Republic	111.9
Sudan	110.8
Congo, D.R.	109.7
Chad	108.4
Guinea	104.9
Nigeria	102.4
Cote d'Ivoire	100
Zimbabwe	100
Guinea-Bissau	99.9
Burundi	98.1
Niger	97.8
Ethiopia	97.5
Kenya	97.4
Liberia	97.3
Uganda	97
Eritrea	96.9
Libya	95.3
Mauritania	94.9
Cameroon	94.3

북한	93.8
Mali	93.1
Sierra Leone	91.9
Congo, Republic	90.8
Rwanda	90.2
Egypt	90
Burkina Faso	89.2
아프리카 평균	88.6
Djibouti	88.1
Angola	88.1
Mozambique	86.9
Malawi	86.9
Togo	86.8
Swaziland	86.3
Gambia	85.4
Zambia	85.2
Equatorial Guinea	84.8
남아시아 평균	84.6
Madagascar	83.6
Comoros	83.3
Senegal	83
Tanzania	80.8
Lesotho	79.9
Algeria	79.6
Benin	78.8
중앙아시아 평균	77.9
중동 평균	76
동남아 평균	75.8
Tunisia	75.8
Morocco	74.6
Sao Tome and Principe	73.7
Cape Verde	73.5
Ghana	71.9
Gabon	71.3
Namibia	70.8
전 세계 평균	70.2
South Africa	67
중미 평균	66.5
남미 평균	65.4
Botswana	62.8
호주·오세아니아 평균	62.1

Seychelles	62.1
동아시아 평균	60
Mauritius	45.2
한국	36.3
서유럽 평균	31.2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전 세계 국가실패지수 평균 70.2(2015년 기준)를 밑도는 경우는 54개국 중 South Africa, Botswana, Seychelles, Mauritius 4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정도가 아니라 남아시아의 국가실패지수 지역 평균을 초과하는 국가가 과반수이며, 중동의 국가실패지수 지역 평균을 초과하는 국가의 수도 43개국에 이르고 있다. 즉, 만약 국가실패지수가 국가 취약성을 정확히 측정한다고 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다수가 전 세계 평균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 간 테러리즘 비교

아래의 리스트는 2014년에 테러가 발생한 국가를 테러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이 테러 고 발생 지역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 리스트를 자세히 보면 국가 별로 테러발생 건수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테러의 발생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테러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극히 낮다. 2015년의 경우 약 절반의 국가에서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별 테러발생 건수 (2015년 기준)

<u>국가명</u>	<u>테러발생 건수</u>
Nigeria	637
Egypt	582
Libya	542
Somalia	407
Sudan	158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41
Mali	120
Burundi	97
Cameroon	82
Kenya	68
South Sudan	54
Central African Republic	48
Niger	41
Chad	27

Tunisia	17	
Algeria	16	
Tanzania	14	
Uganda	10	
Ethiopia	7	
Mozambique	7	
Burkina Faso	5	
Ivory Coast	4	
Guinea	2	
Senegal	2	
South Africa	2	
Djibouti	1	
Lesotho	1	
Morocco	1	
Angola	0	
Benin	0	
Botswana	0	
Cape Verde	0	
Comoros	0	
Congo, Republic	0	
Equatorial Guinea	0	
Eritrea	0	
Gabon	0	
Gambia	0	
Ghana	0	
Guinea-Bissau	0	
Rwanda	0	
Liberia	0	
Madagascar	0	
Malawi	0	
Mauritania	0	
Mauritius	0	
Namibia	0	
Sao Tome and Principe	0	0
Seychelles	0	
Sierra Leone	0	
Swaziland	0	
Togo	0	
Zambia	0	
Zimbabwe	0	

이 리스트는 아프리카를 테러 위험지역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서술인지 잘 보여준다. 만약 테러가 한-아프리카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그러한 인식은 테러의 정확한 빈도나 분포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내 테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오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테러가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국가취약성이 문제가 될지언정 테러는 중요한 위협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아프리카 내 위협요인의 추이와 구성: 국별 분석

테러발생 상위 10개국의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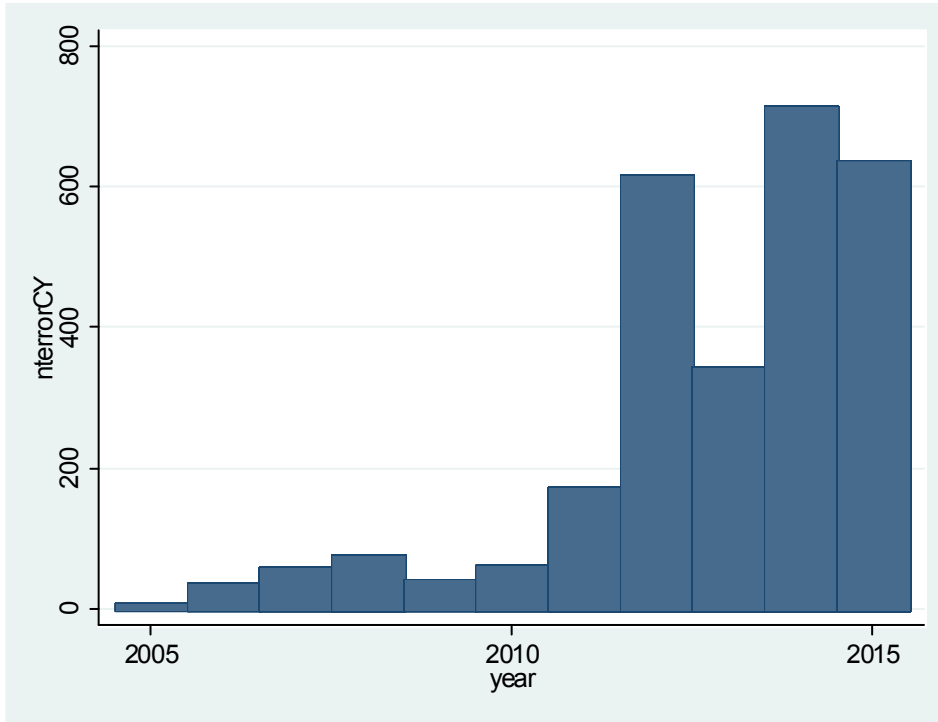
1) Nigeria

나이지리아는 2015년 총 637회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테러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처음부터 테러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테러가 빈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 2012년 이후부터이다. 그전에도 테러가 없지는 않았으나 한 해에 수십 회를 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의 면적이 한반도의 4.2배이고, 인구가 1억 7천만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년에 수십 회 정도의 테러공격이 반드시 많다고 할 수는 없다.

테러발생 추이

아래의 그래프는 2005년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테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테러가 급증하였으며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중동국가들처럼 ‘아랍의 봄’을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2012년을 기점으로 나이지리아에서도 테러가 급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나이지리아는 테러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에 의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이후의 테러는 60% 이상이 Boko Haram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에서 왜 테러가 많은지, 그리고 왜 2012년 이후 테러가 급증하였는지에 대한 대답은 우선 Boko Haram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1	0.04	0.04
Ansaru (Jama'atu Ansarul Muslimina Fi B	5	0.22	0.26
Berom Militants	1	0.04	0.30
Biafra Zionist Movement (BZM)	2	0.09	0.39
Boko Haram	1,490	64.47	64.86
Civilian Joint Task Force (JTF)	1	0.04	64.91
Fulani Militants	267	11.55	76.46
Islamic Movement (Nigeria)	1	0.04	76.50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	15	0.65	77.15
Muslim Fundamentalists	4	0.17	77.33
Odua Peoples' Congress (OPC)	1	0.04	77.37
Ombatse Cult	1	0.04	77.41
People's Democratic Party (PDP)	3	0.13	77.54
Tarok Militia	2	0.09	77.63
Tiv Militia	1	0.04	77.67
Tribesmen	1	0.04	77.72
Unaffiliated Individual(s)	1	0.04	77.76
Unknown	512	22.15	99.91
Urhobo Gbagbako	2	0.09	100.00
Total	2,311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아래는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의 유형이다. 2012년 이후로 가장 흔한 공격 유형은 무장공격이었지만 납치도 220회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1,137	49.20	49.20
Assassination	112	4.85	54.05
Bombing/Explosion	606	26.22	80.27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62	7.01	87.28
Hijacking	3	0.13	87.41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0	0.43	87.84
Hostage Taking (Kidnapping)	220	9.52	97.36
Unarmed Assault	3	0.13	97.49
Unknown	58	2.51	100.00
Total	2,311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테러공격의 대상은 절반 정도가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이었다. 종교적 타깃은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6.53%),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이 105회(4.54%) 발생한 것이 흥미롭다. Boko Haram이라는 이름이 “서구 교육은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하느니만큼 교육시설에 대해 공격을 하고 여학생을 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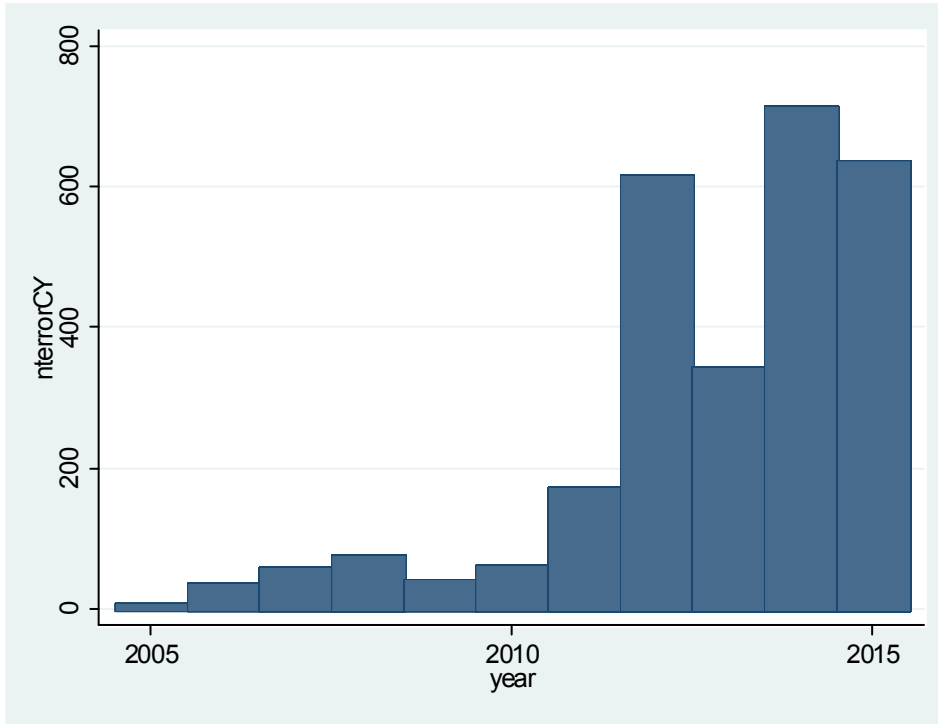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1	0.04	0.04
Business	135	5.84	5.88
Educational Institution	105	4.54	10.43
Government (Diplomatic)	4	0.17	10.60
Government (General)	230	9.95	20.55
Journalists & Media	16	0.69	21.25
Maritime	4	0.17	21.42
Military	187	8.09	29.51
NGO	3	0.13	29.64
Other	5	0.22	29.86
Police	244	10.56	40.42
Private Citizens & Property	1,041	45.05	85.46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151	6.53	91.99
Telecommunication	35	1.51	93.51
Terrorists/Non-State Militia	14	0.61	94.12
Transportation	48	2.08	96.19
Unknown	55	2.38	98.57
Utilities	9	0.39	98.96
Violent Political Party	24	1.04	100.00
Total	2,311	100.00	

2) Egypt

이집트에서는 2015년에 테러가 총 582회 발생하여 총 637회의 테러가 발생한 나이지리아의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 집계되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집트의 테러발생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에서처럼 2012년을 전후로 해서 테러의 발생이 급증하였다. 나이지리아와는 달리 이집트에서 테러발생이 급증한 현상은 ‘아랍의 봄’ 과 그 여파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테러발생 추이

이집트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또한 나이지리아와는 달리 이집트에서는 Boko Haram과 같은 한 개의 테러집단이 다수의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테러집단이 각각 상대적으로 소수의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테러집단의 이름으로 판단할 때 대다수의 테러집단이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다.

이집트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jnad Misr	32	2.48	2.48
Al-Furqan Brigades	2	0.15	2.63
Ansar Bayt al-Maqdis (Ansar Jerusalem)	61	4.72	7.35
Bedouin tribesmen	9	0.70	8.05
Egyptian Tawhid and Jihad	1	0.08	8.13
Hamas (Islamic Resistance Movement)	1	0.08	8.20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	3	0.23	8.44
Jaljala Army	1	0.08	8.51
Muslim Brotherhood	31	2.40	10.91
Muslim Fundamentalists	76	5.88	16.80
Popular Resistance Movement (Egypt)	14	1.08	17.88
Revolutionary Punishment Movement	11	0.85	18.73
Sinai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171	13.24	31.97
Unknown	878	67.96	99.92
Youth of the Land of Egypt	1	0.08	100.00
Total	1,292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아래는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공격의 유형으로서 폭탄테러가 공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이지리아의 경우 폭탄테러는 전체의 26.22%를 차지하였다.)

이집트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401	31.04	31.04
Assassination	45	3.48	34.52
Bombing/Explosion	741	57.35	91.87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28	2.17	94.04
Hijacking	4	0.31	94.35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2	0.15	94.50
Hostage Taking (Kidnapping)	48	3.72	98.22
Unarmed Assault	1	0.08	98.30
Unknown	22	1.70	100.00
Total	1,292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이 공격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나이지리아와는 달리 이집트에서는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2012년 이후 8.75%에 그치고, 대신 경찰과 군부에 대한 공격이 함하여 전체 테러의 절반을 넘었다. 즉, 이집트의 테러는 반정부적 성격을 지닌다.

이집트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4	0.31	0.31
Business	54	4.18	4.49
Educational Institution	24	1.86	6.35
Food or Water Supply	3	0.23	6.58
Government (Diplomatic)	10	0.77	7.35
Government (General)	66	5.11	12.46
Journalists & Media	10	0.77	13.24
Maritime	2	0.15	13.39
Military	334	25.85	39.24
NGO	1	0.08	39.32
Other	3	0.23	39.55
Police	385	29.80	69.35
Private Citizens & Property	113	8.75	78.10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2	2.48	80.57
Telecommunication	9	0.70	81.27
Terrorists/Non-State Militia	2	0.15	81.42
Tourists	6	0.46	81.89
Transportation	44	3.41	85.29
Unknown	123	9.52	94.81
Utilities	65	5.03	99.85
Violent Political Party	2	0.15	100.00
Total	1,29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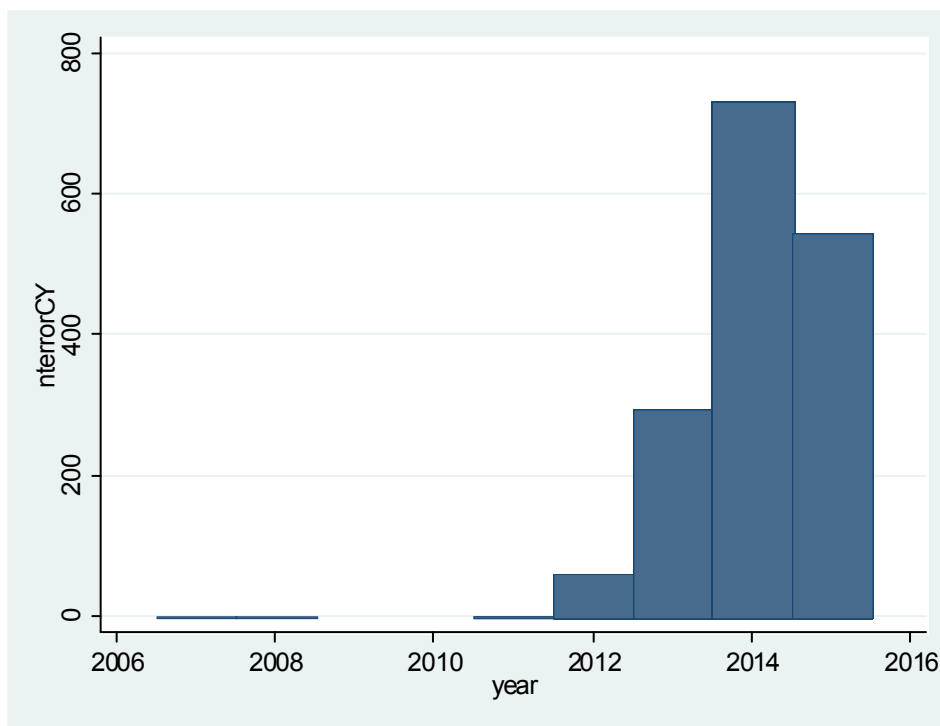
이집트와 나이지리아가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많은 테러를 경험하였지만, 테러집단의 수와 성격, 테러공격의 유형, 테러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프리카의 테러위험은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 시기, 유형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

3) Libya

리비아는 2015년 총 542회의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리카 3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2위인 이집트나 3위인 리비아는 ‘아랍의 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아래의 그래프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테러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리비아의 경우도 테러는 최근에 급증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테러발생 추이

리비아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아래의 표는 2012년 이후 테러를 저지른 집단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다양한 집단이 테러를 저질렀고 테러집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나이지리아 경우와 극명히 대조적이다.

리비아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bdul Ghani Kikli Militia	1	0.06	0.06
Abu Bakr Unis Jabr Brigade	1	0.06	0.12
Abu Obaida bin Jarrah Brigade	5	0.31	0.43
Abu Salim Martyr's Brigade	1	0.06	0.49
Al-Faruq Militia	1	0.06	0.55
Al-Madani Brigade	1	0.06	0.62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1	0.06	0.68
Al-Qaqa Brigade	5	0.31	0.98
Al-Saadawi Militia	1	0.06	1.05
Al-Sawaiq Brigade	1	0.06	1.11
Al-Zintan Revolutionaries' Military Cou	1	0.06	1.17
Amazigh Islamic Front	1	0.06	1.23
Ansar al-Sharia (Libya)	62	3.82	5.05
Ansar al-Sharia (Tunisia)	2	0.12	5.17
Army of the Tribes	3	0.18	5.35
Barq al-Nasser Brigade	1	0.06	5.42
Barqa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89	5.48	10.89
Brigades of Imprisoned Sheikh Omar Abde	3	0.18	11.08
Cyrenaica Self-Defense Force	2	0.12	11.20
Derna Mujahideen Shura Council	2	0.12	11.32
February 17 Martyrs Brigade	6	0.37	11.69
Fezzan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3	0.18	11.88
Free Libya Martyrs Brigade	3	0.18	12.06
Gaddafi Loyalists	5	0.31	12.37
Haftar Militia	25	1.54	13.91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	2	0.12	14.03
Islamic Youth Shura Council	3	0.18	14.22
Jaish Tahkim al-Din	1	0.06	14.28
Jaish al-Islam (Libya)	1	0.06	14.34
Jund al-Islam	1	0.06	14.40
Knights of Janzour	1	0.06	14.46
Libya Revolutionaries Operations Room (7	0.43	14.89
Libya Shield Force	8	0.49	15.38
Libyan Militia	2	0.12	15.51
Medfaiyah wal-Sewarigh Brigade	1	0.06	15.57
Misrata Brigades	8	0.49	16.06
Mitiga Militia	1	0.06	16.12
Muslim Brotherhood	1	0.06	16.18
Muslim Fundamentalists	103	6.34	22.52
Rafallah al-Sahati Brigade	2	0.12	22.65
Shura Council of Ajdabiya Revolutionari	3	0.18	22.83
Shura Council of Benghazi Revolutionari	14	0.86	23.69
Shura Council of Mujahideen in Derna	2	0.12	23.82
Tabu Tribe	1	0.06	23.88
Takfir wal-Hijra (Excommunication and E	6	0.37	24.25
Tribesmen	2	0.12	24.37
Tripoli Province of the Islamic State	143	8.80	33.17
Tuaregs	1	0.06	33.23
Unaffiliated Individual(s)	2	0.12	33.35
Unknown	1,080	66.46	99.82
Vanguards of the Caliphate	1	0.06	99.88
Zawiya Martyrs Brigade	1	0.06	99.94
Zwai Tribe	1	0.06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다음은 2012년 이후 테러공격의 유형을 보여주는 표로서 폭탄테러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장공격이 많다.

리비아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334	20.55	20.55
Assassination	161	9.91	30.46
Bombing/Explosion	722	44.43	74.89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56	3.45	78.34
Hijacking	10	0.62	78.95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4	0.25	79.20
Hostage Taking (Kidnapping)	253	15.57	94.77
Unarmed Assault	4	0.25	95.02
Unknown	81	4.98	100.00
Total	1,625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아래의 표는 2012년 이후 테러의 대상으로 군, 정부, 경찰, 외교단이 각기 23.6%, 11.5%, 8.5%,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지리아나 이집트에서 외교단에 대한 공격이 1% 미만이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리비아의 경우 외교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테러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뱅가지 사태가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은 전체의 22.7%이다. 리비아의 테러는 테러대상의 유형에 있어서 나이지리아와 이집트를 섞어 놓은 듯한 분포를 보인다.

리비아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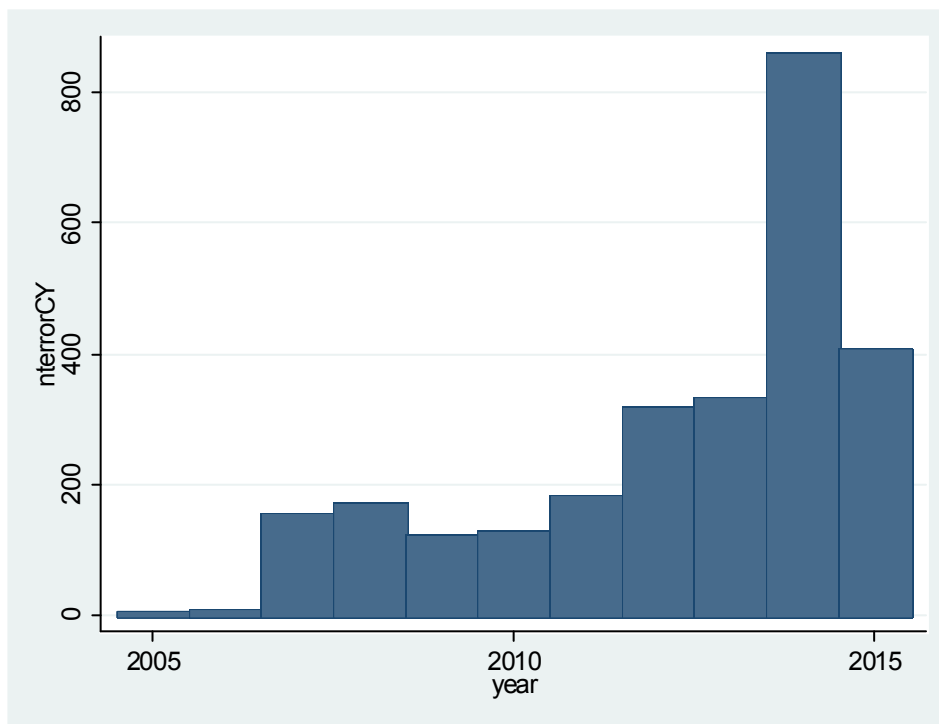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27	1.66	1.66
Business	143	8.80	10.46
Educational Institution	31	1.91	12.37
Food or Water Supply	1	0.06	12.43
Government (Diplomatic)	58	3.57	16.00
Government (General)	186	11.45	27.45
Journalists & Media	61	3.75	31.20
Maritime	5	0.31	31.51
Military	383	23.57	55.08
NGO	16	0.98	56.06
Other	6	0.37	56.43
Police	138	8.49	64.92
Private Citizens & Property	368	22.65	87.57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57	3.51	91.08
Telecommunication	1	0.06	91.14
Terrorists/Non-State Militia	87	5.35	96.49
Tourists	1	0.06	96.55
Transportation	1	0.06	96.62
Unknown	37	2.28	98.89
Utilities	16	0.98	99.88
Violent Political Party	2	0.12	100.00
Total	1,625	100.00	

4) Somalia

소말리아는 2015년 총 407회의 테러공격을 경험하여 아프리카 제4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들과는 달리 소말리아의 경우 테러의 발생빈도가 2012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4년에 급증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이전 수준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리비아나 이집트처럼 아랍의 봄이나 그 여파의 영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2014년에 테러발생이 급증하였는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테러발생 추이

소말리아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테러집단에 있어서 소말리아는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현저하게 특정 집단의 비중이 크다. Al-Shabaab 이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의 82% 정도를 저질렀다. 그에 비하면 다른 테러 집단의 활동은 미미하다. 따라서 Al-Shabaab에 대한 이해 없이 소말리아의 테러에 관한 이해는 어려워 보인다.

소말리아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hlu-sunah wal-jamea (Somalia)	6	0.31	0.31
Al-Shabaab	1,567	81.57	81.88
Awdal Regional Administration Army (ARA)	1	0.05	81.94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	1	0.05	81.99
Muslim Fundamentalists	2	0.10	82.09
Raskamboni Movement	1	0.05	82.14
Shabelle Valley militia	2	0.10	82.25
unknown	341	17.75	100.00
Total	1,921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다음은 2012년 이후 공격유형으로 폭탄테러가 1위이고 무장공격이 몇 퍼센트 차이로 2위이다.

소말리아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579	30.14	30.14
Assassination	185	9.63	39.77
Bombing/Explosion	745	38.78	78.5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22	1.15	79.70
Hijacking	7	0.36	80.06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6	0.31	80.37
Hostage Taking (Kidnapping)	113	5.88	86.26
unknown	264	13.74	100.00
Total	1,921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테러의 공격 대상은 군과 정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은 14.9%를 차지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격 비율은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중이 가장 낮다.

소말리아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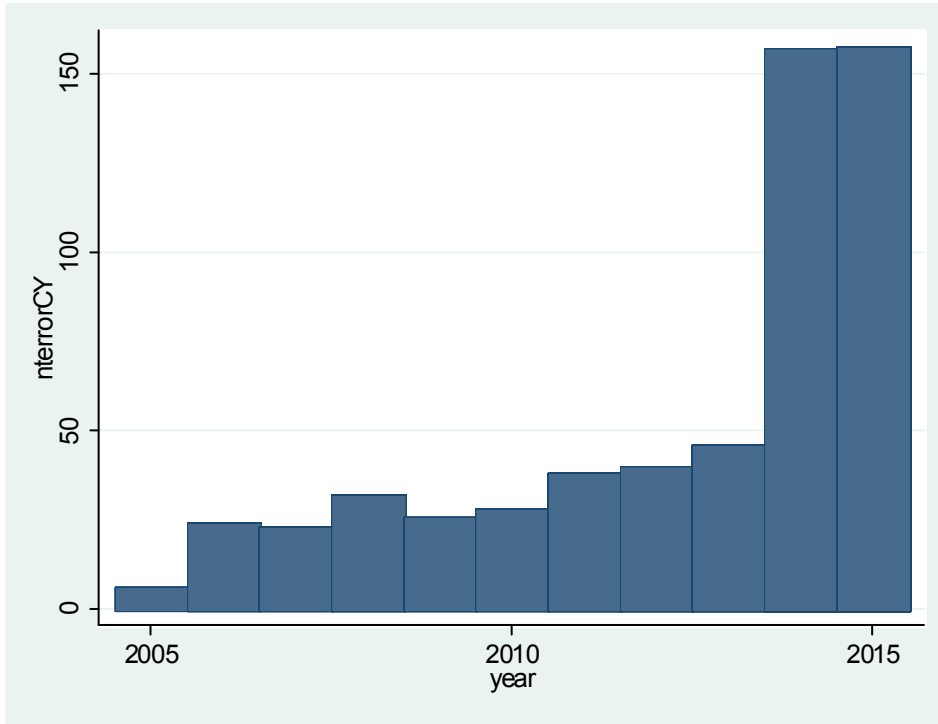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15	0.78	0.78
Business	75	3.90	4.69
Educational Institution	13	0.68	5.36
Food or Water Supply	8	0.42	5.78
Government (Diplomatic)	28	1.46	7.24
Government (General)	277	14.42	21.66
Journalists & Media	50	2.60	24.26
Maritime	5	0.26	24.52
Military	958	49.87	74.39
NGO	16	0.83	75.22
Other	4	0.21	75.43
Police	96	5.00	80.43
Private Citizens & Property	286	14.89	95.31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19	0.99	96.30
Telecommunication	4	0.21	96.51
Terrorists/Non-State Militia	20	1.04	97.55
Transportation	11	0.57	98.13
Unknown	30	1.56	99.69
Utilities	6	0.31	100.00
Total	1,921	100.00	

5) Sudan

수단은 2015년 총 158회의 테러를 경험하여 아프리카 5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수단에서는 2014년에 테러가 급증하였다. 이는 소말리아와 유사하고, 그 전에 살펴본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와는 다른 현상이다.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에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테러가 급증하였다. 대개의 국가에서 2015년에는 2014년 보다 테러가 감소하였는데 이점에서 수단은 예외가 되고 있다. 2015년에 근소하게나마 테러가 증가하였다.

테러발생 추이

수단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기간 중 수단에서 테러는 두 단체가 전체 테러의 절반 이상을 저지르고 있다. 테러집단의 분포 측면에서 수단은 나이지리아나 소말리아에 가깝고, 이집트, 특히 리비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단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bu Tira (Central Reserve Forces)	1	0.25	0.25
Bedouin Movement (Sudan)	2	0.50	0.75
Government Supporters	1	0.25	1.00
Hamza Combat Group against Atheism and Janjaweed	1	0.25	1.25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163	40.65	41.90
Liberation and Justice Movement (LJM)	6	1.50	43.39
Misseriya Arab Tribesmen	10	2.49	45.89
Sudan Liberation Army-Minni Minawi (SLA)	2	0.50	46.38
Sudan Liberation Movement	8	2.00	48.38
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 No Tribesmen	6	1.50	49.88
Sudan Revolutionary Front (SRF)	52	12.97	62.84
Sudanese People's Front	5	1.25	64.09
Tribesmen	1	0.25	64.34
Unknown	7	1.75	66.08
Unknown	136	33.92	100.00
Total	401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의 공격유형에 있어서 폭탄테러의 비중이 상당히 낮고 인질납치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무장공격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공격유형이다.

수단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166	41.40	41.40
Assassination	7	1.75	43.14
Bombing/Explosion	33	8.23	51.37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3	3.24	54.61
Hijacking	14	3.49	58.10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3	0.75	58.85
Hostage Taking (Kidnapping)	124	30.92	89.78
Unarmed Assault	11	2.74	92.52
Unknown	30	7.48	100.00
Total	401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수단에서 테러공격의 대상은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이 44%로 1위이고, 외교단이 12.5%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반 정부나 군, 경찰에 대한 공격은 비율이 높지 않다. 리비아에서도 외교단에 대한 공격이 3.6%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단에서 외교단에 대한 공격비율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수단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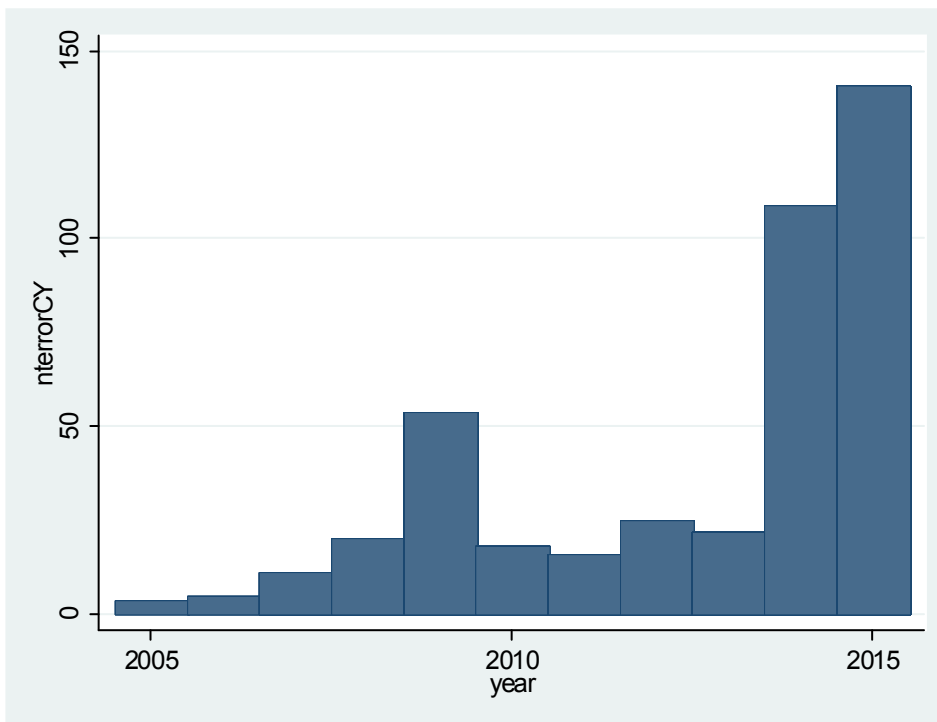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1	0.25	0.25
Business	15	3.74	3.99
Educational Institution	5	1.25	5.24
Government (Diplomatic)	50	12.47	17.71
Government (General)	19	4.74	22.44
Journalists & Media	2	0.50	22.94
Military	40	9.98	32.92
NGO	9	2.24	35.16
Other	54	13.47	48.63
Police	16	3.99	52.62
Private Citizens & Property	177	44.14	96.76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6	1.50	98.25
Terrorists/Non-State Militia	1	0.25	98.50
Tourists	1	0.25	98.75
Transportation	5	1.25	100.00
Total	401	100.00	

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5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총 141회의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리카 6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콩고 민주공화국도 처음부터 테러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부터 테러발생이 늘기 시작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2014년 대비 2015년에 테러가 감소하였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예외이다.

테러발생 추이

콩고 민주공화국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Allied Democratic Force(ADF)에 의한 테러가 가장 많지만(전체의 29.3%), 나이지리아나 소말리아처럼 한 테러집단이 독주하는 상황은 아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lliance of Patriots for a Free and Sov	6	2.02	2.02
Allied Democratic Forces (ADF)	87	29.29	31.31
Colonel Albert Kahasha Militia	1	0.34	31.65
Congolese Patriotic Resistance-Patrioti	1	0.34	31.99
Democrat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36	12.12	44.11
Enyele Militia	1	0.34	44.44
Lord's Resistance Army (LRA)	36	12.12	56.57
M23	8	2.69	59.26
Mai Mai Bakata Katanga Militia	10	3.37	62.63
Mai Mai Simba Militia	7	2.36	64.98
Mayi Mayi	18	6.06	71.04
National Army for the Liberation of Uga	1	0.34	71.38
Nduma Defense of Congo (NDC)	3	1.01	72.39
Nyatura Militia	3	1.01	73.40
Patriotic Resistance Front in Ituri (FR	26	8.75	82.15
Raia Mutomboki Militia	1	0.34	82.49
Union of Congolese Patriots (UPC)	2	0.67	83.16
Unknown	50	16.84	100.00
Total	297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2012년 이후 무장공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탄테러는 비중이 높지 않다 (5.7%). 대신 납치가 34%로 무장공격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119	40.07	40.07
Assassination	7	2.36	42.42
Bombing/Explosion	17	5.72	48.1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5	1.68	49.83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6	2.02	51.85
Hostage Taking (Kidnapping)	101	34.01	85.86
Unknown	42	14.14	100.00
Total	297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테러공격의 대상은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 군부, 그리고 외교단 순으로 비율이 높다. 특히 일반 시민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거의 60%에 근접하고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어느 나라보다도 일반 시민에 대한 테러의 위협이 높은 국가이다.

콩고 민주공화국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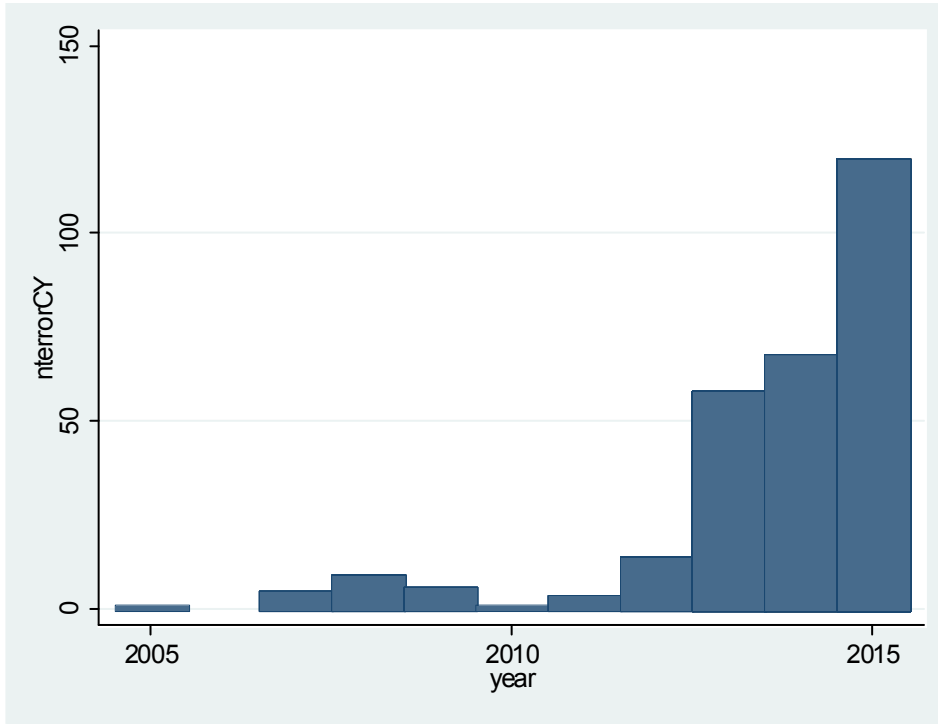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3	1.01	1.01
Business	3	1.01	2.02
Educational Institution	1	0.34	2.36
Government (Diplomatic)	15	5.05	7.41
Government (General)	7	2.36	9.76
Journalists & Media	5	1.68	11.45
Military	63	21.21	32.66
NGO	5	1.68	34.34
Other	4	1.35	35.69
Police	16	5.39	41.08
Private Citizens & Property	170	57.24	98.32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	1.01	99.33
Tourists	1	0.34	99.66
Transportation	1	0.34	100.00
Total	297	100.00	

7) Mali

말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20회의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리카 7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처음부터 테러의 빈도가 높았던 것이 아니고 2013년에 테러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은 2012년을 계기로 테러가 증가한 국가군과 2014년을 계기로 테러가 증가한 국가군으로 양분되는데, 말리는 이러한 공통된 패턴을 벗어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2012년이나 2014년에 공통적으로 테러가 증가한 사실은 테러의 발생 원인이 특정국가 내부에 있다기보다 공통된 외부적 요인-예컨대 아랍의 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말리에서는 2012년이나 2014년이 아닌 2013년에 테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말리의 경우에는 (1) 어떤 이유에서건 외부적 요인이 국내에 영향을 주는 데에 드는 시간이 다른 나라와 다르거나 (2) 외부적 요인보다는 말리 내부의 고유한 원인에 의하여 2013년에 테러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테러발생 추이

말리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다수의 테러행위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어느 행위자도 Boko Haram이나 Al-Shabaab 과 같은 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말리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l-Mua'qi'oon Biddam Brigade (Those who	9	3.46	3.46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26	10.00	13.46
Ansar al-Dine (Mali)	19	7.31	20.77
Arab Movement of Azawad (MAA)	7	2.69	23.46
Azawa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MN	22	8.46	31.92
Coordination of Azawad Movements (CMA)	9	3.46	35.38
Fulani Militants	1	0.38	35.77
Macina Liberation Front (FLM)	9	3.46	39.23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42	16.15	55.38
Muslim Fundamentalists	23	8.85	64.23
National Committee for the Restoration	1	0.38	64.62
Self-Defense Group of Imghad Tuaregs an	3	1.15	65.77
Separatists	3	1.15	66.92
Tuaregs	4	1.54	68.46
Unknown	82	31.54	100.00
Total	260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다른 나라에서는 무장공격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말리에서는 2012년 이후 폭탄테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말리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67	25.77	25.77
Assassination	5	1.92	27.69
Bombing/Explosion	120	46.15	73.8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1	4.23	78.08
Hijacking	5	1.92	80.00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6	2.31	82.31
Hostage Taking (Kidnapping)	31	11.92	94.23
Unarmed Assault	1	0.38	94.62
Unknown	14	5.38	100.00
Total	260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말리에서 테러공격의 주 대상은 외교단(28.4%), 군부(25.4%), 그리고 일반시민(23.5%)이다. 말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중에서 외교단에 대한 테러공격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말리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2	0.77	0.77
Business	4	1.54	2.31
Educational Institution	1	0.38	2.69
Government (Diplomatic)	74	28.46	31.15
Government (General)	14	5.38	36.54
Journalists & Media	4	1.54	38.08
Maritime	1	0.38	38.46
Military	66	25.38	63.85
NGO	7	2.69	66.54
Other	1	0.38	66.92
Police	5	1.92	68.85
Private Citizens & Property	61	23.46	92.31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6	2.31	94.62
Terrorists/Non-State Militia	5	1.92	96.54
Transportation	6	2.31	98.85
Unknown	3	1.15	100.00
Total	26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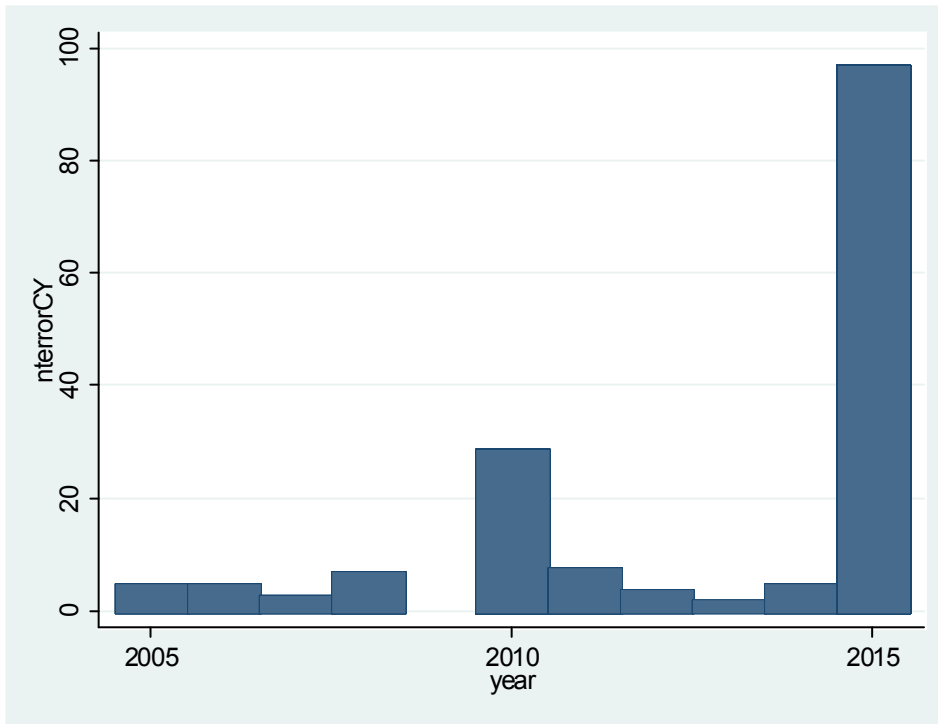
8. Burundi

부룬디에서는 2015년 97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리카 8위의 테러발생 국가가 되었다. 한

해에 97건의 테러가 발생한 것은 부룬디로서는 의외의 현상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룬디는 테러발생 빈도가 낮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에서 테러발생이 급증한 시점이 2012년이나 2014년이었고, 2015년에는 테러의 빈도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룬디에서 2015년에 갑자기 테러가 급증한 것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테러발생 추이

부룬디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이후 부룬디에서 발생한 테러는 누구에 의한 것인지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정보수집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테러행위자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부룬디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National Liberation Front (FNL)	5	4.63	4.63
(Burund Unknown)	103	95.37	100.00
Total	108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2012년 이후 가장 빈도수가 높은 테러공격의 유형은 폭탄테러이다. 무장공격이 6 % 포인트 차이로 그 다음이며 암살이 13% 정도를 차지한다. 납치 등 다른 공격유형은 비중이 낮다.

부룬디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40	37.04	37.04
Assassination	14	12.96	50.00
Bombing/Explosion	47	43.52	93.52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1	0.93	94.44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	0.93	95.37
Hostage Taking (Kidnapping)	1	0.93	96.30
Unknown	4	3.70	100.00
Total	108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테러공격의 대상은 경찰이 약 27%를 차지하고, 일반 시민, 사업자, 군부, 정부기관의 비중이 각기 10에서 20% 사이이다. 테러공격의 대상에 있어서 특정한 집단이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부룬디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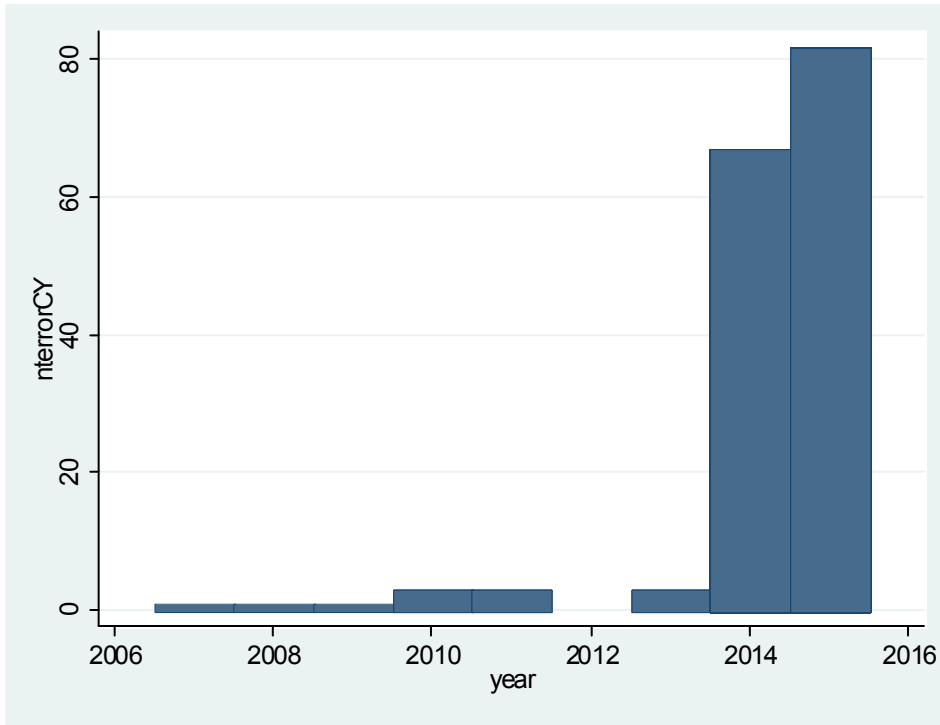
targetype1_txt	Freq.	Percent	Cum.
Business	16	14.81	14.81
Educational Institution	1	0.93	15.74
Government (General)	11	10.19	25.93
Journalists & Media	2	1.85	27.78
Military	15	13.89	41.67
Police	29	26.85	68.52
Private Citizens & Property	20	18.52	87.04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1	0.93	87.96
Transportation	1	0.93	88.89
Unknown	6	5.56	94.44
Violent Political Party	6	5.56	100.00
Total	108	100.00	

9) Cameroon

카메룬은 2015년 한 해 동안 82회의 테러가 발생하여 아프리카 9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카메룬도 원래부터 테러가 빈발하였던 것은 아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까지 테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4년 갑자기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더 늘어났다.

테러발생 추이

카메룬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나이지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카메룬에서도 Boko Haram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카메룬에서 2014년, 2015년에 테러가 급증한 것은 카메룬에서 Boko Haram의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카메룬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nti-Balaka Militia	1	0.66	0.66
Boko Haram	128	84.21	84.87
Democratic Front of the Central African	8	5.26	90.13
Seleka	2	1.32	91.45
Unknown	13	8.55	100.00
Total	152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2012년 이후 테러공격의 유형으로는 무장공격, 폭탄테러, 납치가 각기 22-23% 정도를 차

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공격이 49.2%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Boko Haram이 카메룬에서는 약간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에 비해 카메룬에서 무장공격은 비중이 줄었고 납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납치: 나이지리아 9.5%→카메룬 26%).

카메룬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34	22.37	22.37
Assassination	2	1.32	23.68
Bombing/Explosion	35	23.03	46.71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7	4.61	51.32
Hijacking	2	1.32	52.63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1	0.66	53.29
Hostage Taking (Kidnapping)	35	23.03	76.32
Unknown	36	23.68	100.00
Total	152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공격대상은 과반수가 일반 시민이었다. 다음으로 군부와 사업자였으며, 나이지리아에서보다 교육기관에 대한 공격의 비중이 낮았다(교육기관 비중: 나이지리아 4.54% vs. 카메룬 0.67 %).

카메룬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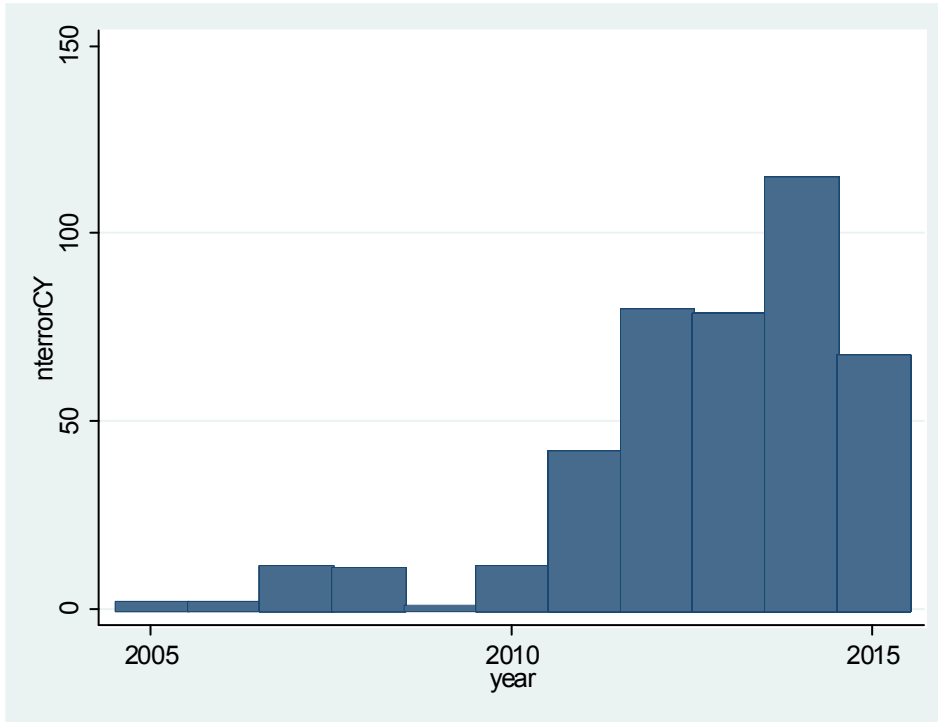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Business	6	3.95	3.95
Educational Institution	1	0.66	4.61
Government (Diplomatic)	2	1.32	5.92
Government (General)	5	3.29	9.21
Military	26	17.11	26.32
Other	2	1.32	27.63
Police	9	5.92	33.55
Private Citizens & Property	89	58.55	92.11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7	4.61	96.71
Tourists	1	0.66	97.37
Transportation	3	1.97	99.34
Unknown	1	0.66	100.00
Total	152	100.00	

10) Kenya

케냐에서는 2015년 총 68회의 테러가 발생해서 아프리카 10위의 테러발생국이 되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케냐에서는 2011년부터 테러가 완만히 증가하여 왔다.

테러발생 추이

케냐 테러발생 건수 (2005-2015)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테러행위의 66.7%가 Al-Shabaab에 의하여 저질러졌다(소말리아에서는 Al-Shabaab이 발생한 테러 중 82%를 저질렀다). 소말리아와 마찬가지로 케냐에서도 Al-Shabaab을 이해하지 않고는 테러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케냐 주요 테러행위자 (2012년 이후)

gname	Freq.	Percent	Cum.
Al-Shabaab	229	66.96	66.96
Merille Militia	2	0.58	67.54
Mombasa Republican Council (MRC)	9	2.63	70.18
Muslim Fundamentalists	1	0.29	70.47
Tribesmen	1	0.29	70.76
Unknown	100	29.24	100.00
Total	342	100.00	

테러공격의 유형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공격의 유형으로 케냐에서도 소말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폭탄테러

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장공격의 비중이 높다.

케냐 테러공격 유형 (2012년 이후)

attacktype1_txt	Freq.	Percent	Cum.
Armed Assault	130	38.01	38.01
Assassination	18	5.26	43.27
Bombing/Explosion	148	43.27	86.55
Facility/Infrastructure Attack	6	1.75	88.30
Hijacking	8	2.34	90.64
Hostage Taking (Barricade Incident)	8	2.34	92.98
Hostage Taking (Kidnapping)	18	5.26	98.25
Unarmed Assault	1	0.29	98.54
Unknown	5	1.46	100.00
Total	342	100.00	

테러공격의 대상

2012년 이후 테러공격의 대상은 경찰, 일반 시민, 사업자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에 반해 소말리아에서는 군과 정부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같은 테러행위자이고 지역도 연결한 국가이지만 테러공격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케냐 주요 테러공격 대상 (2012년 이후)

targtype1_txt	Freq.	Percent	Cum.
Airports & Aircraft	2	0.58	0.58
Business	51	14.91	15.50
Educational Institution	6	1.75	17.25
Government (Diplomatic)	4	1.17	18.42
Government (General)	24	7.02	25.44
Maritime	1	0.29	25.73
Military	27	7.89	33.63
NGO	8	2.34	35.96
Other	10	2.92	38.89
Police	88	25.73	64.62
Private Citizens & Property	61	17.84	82.46
Religious Figures/Institutions	33	9.65	92.11
Tourists	2	0.58	92.69
Transportation	14	4.09	96.78
Unknown	10	2.92	99.71
Utilities	1	0.29	100.00
Total	342	100.00	

7. 결론 및 요약

중국정부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설립할 때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테러행위’라 비난하여 한국과 중국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테러리즘을 일본의 입장에서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시각도 문제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된 database를 구축하는 것도 또한 매우 힘들다.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고 정보도 불완전한 것은 국가실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국가실패를 ‘제국주의적 담론’이라고 하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⁷⁾

시각과 관점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지만 최근 open-source data가 풍부해지고 big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정보수집의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에 관한 양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정부, 기업, 국민이 당면하는 위험요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양적 데이터를 통해 본 아프리카 지역의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시기별로, 지역과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위험요인은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간, 국가 간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對 타 지역의 위험요인 비교

- 아프리카의 국가실패지수 평균은 다른 어느 지역의 국가실패지수 평균에 비해서도 높다.
- 테러리즘의 발생 건수도 남아시아와 중동을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남아시아와 중동의 테러리즘 발생 건수에 접근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을 비교의 기준으로 할 경우 아프리카는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소지역별 위험요인 비교

- 아프리카를 소지역으로 나누어 국가실패지수를 비교해도 남아프리카 소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대륙이나 지역에 비해 모두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전반적으로 국가취약성이 높은 대륙이라고 하더라도 과히 틀린 지적이 아니다.
- 하지만 테러발생에 관해서는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으며,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소지역이 안정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테러발생 건수의 경우 소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지역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나 테러발생 건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시간적으로 과거에는 테러의 발생이 많지 않았고, 2012년을 전후로 급증하였다가 다소

7) Jones, Branwen Gruffydd, “‘Good governance’ and ‘state failure’: genealogies of imperial discourse,”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6, No. 1 (2013).

감소하였다. 달리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테러발생의 시간적 분포는 가변적이다(하지만 지리적 분포는 비가변적이다).

국가별 위험요인 비교

-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다수가 국가실패지수의 전 세계 평균 국가실패지수뿐만 아니라 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평균 국가실패지수를 초과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 국가의 취약성은 국가별로 봐도 국제적으로 비교해 거의 일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 테러발생의 경우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테러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극히 낮다. 2015년의 경우 아프리카의 약 절반의 국가에서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도 많은 지역이다.

테러 고 발생국의 비교분석

- 테러의 고 발생국이라고 하더라도 테러의 발생은 획일적이지 않고 시기, 유형 등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 테러가 급증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간에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국가는 2012년을 계기로, 일부 국가는 2014년을 계기로 테러가 급증하였다.

- 테러행위자의 수와 성격에 국가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는 Boko Haram이, 소말리아와 케냐에서는 Al-Sabaab 이 지배적이지만 리비아, 이집트, 말리 등에서는 다수의 소규모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 테러공격의 유형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공격이 제일 많았고, 이집트, 말리, 브룬디에서는 폭탄테러가 제일 많았으며, 수단이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납치의 비율이 전체 테러의 30%를 넘었다.

- 테러공격의 대상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공격이 전체 테러의 절반을 넘었으나 이집트에서는 경찰과 군부에 대한 공격이 전체 공격의 절반을 넘었다. 말리나 수단, 리비아에서는 외교단에 대한 공격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말리의 경우 가장 큰 공격대상이 외교단이었다.

아프리카는 광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마치 단일한 지역처럼 볼 경우 아프리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되며, 아프리카와의 협력도 증진하기 어렵다. 아프리카를 소지역별로, 국가별로 보면서 위험요인과 협력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1) 테러대비 재외공관 안전강화 방안⁸⁾

우리나라는 과거 김선일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많은 조치를 도입하였다. 외교부 내에는 재외국민보호과와 재외국민안전과가 신설되었고, 영사콜센터, 여행경보제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신속해외송금제도, 신속대응팀과 같은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재외공관이나 재외공관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그간 별로 취해지지 않아, 재외공관은 여전히 테러 위협의 ‘소프트 타겟’으로 남아있다. 재외공관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우리 외교관들의 근무공간이고, 비상시에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최종적인 대피처이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안전은 외교관의 안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현재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에서 공관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는 경호와 보안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테러 경호와 보안시설을 담당하는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1명의 담당자는 경호나 보안 업무 외에도 “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 국고채무부담행위 원리금 및 이자상환 사업”도 같이 맡고 있는 현실이다.(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우리 공관이나 공관원의 희생이 발생하고 난 이후 뒤늦게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해서 재외공관과 공관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중대한 위협이 있더라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리적, 정치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작은 위협이라도 일단 발생한 후에는 대대적으로 사후대응이 따르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멀리는 뱅가지 사태부터 가깝게는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재외공관과 재외공관원에 대한 테러공격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대형 테러공격이 연이어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공관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취해졌다.

미국이 시행착오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재외공관과 공관원의 안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의사안전 전담 직책과 조직의 필요성

현재처럼 1명의 직원이 재외공관의 대테러 경호와 보안시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외사안전 차관보’ 밑에 ‘외사안전국’과 ‘외사경

8) 이 절의 내용은 한인택, “테러의 '소프트 타겟' 재외공관,” JPI PeaceNet, 2016.8.5.를 통하여 소개된 바 있다.

호처'가 있어서 재외공관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외교부의 기획조정실 내 외사안전관직을 신설하여 그 밑에 기존의 재외공관담당관, 외교정보보안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을 두고 지휘하도록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만 하다.

(2) 사설 경호 인력 활용

미국의 경우는 '외사경호처'와 미군 해병대가 재외공관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처럼 별도의 조직을 창설하거나 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사설 경호업체와 현지 채용 경호원을 이용하여 고위험국가 내 공관과 공관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특전사나 해병대를 전역한 장교와 사병이 많기 때문에 사설경호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하고, 현지채용 경호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도 비교적 크지 않다.

(3) 물리적 안전 강화

폭탄테러, 총격, 방화 등으로부터 공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물은 보강하고, 신축되는 공관은 처음부터 보안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고 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일반 도로부터 거리유지, 방벽강화, 출입구 통제 등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는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실(safe room)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현지 정보의 수집과 활용

주재 지역과 국가에 존재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위협을 정확히 평가하고, 가능한 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관장과 공관 내 외사안전 담당자가 현지에서 수집된 정보와 분석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공관과 공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관의 폐쇄나 이전, 공관원의 철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관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반드시 우리에게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과 공관원의 철수(ordered departure)에 관한 권한을 국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현지 공관장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국민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처하게 되는 각종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거나 인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외교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있으며, 그러한 이들이 우리 국민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소프트 타깃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우리 외교관의 근무지이고, 우리 국민과 동포의 최종적 대피처인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의 인과관계 탐색

테러리즘과 국가실패는 아프리카에 실존하는 위험요인으로 정부, 기업, 개인 차원에서 한-아프리카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 왔다. 테러리즘도 국가실패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테러리즘에 초점을 맞추고 테러리즘을 원인에 대한 가설을 국가실패지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약식으로 (informally) 검증해 보고자 한다.

테러발생 상위 5개국	국가	테러건수	국가실패지수 상위 5개국	국가	국가실패지수
	Somalia	862		Somalia	112.6
	Libya	729		Central African Republic	110.6
	Nigeria	713		Dem. Rep. of Congo	110.2
	Egypt	346		Sudan	110.1
	Sudan	157		Chad	108.7

김동석 교수는 아프리카 극단주의 무장활동 확산의 ‘근본원인’으로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⁹⁾

- 1) 지리적 위치와 정부의 국경영토 통제능력의 부족
- 2) 급진적 이슬람의 유입과 소외된 종족의 불만
- 3) 기후 변화
- 4) 문명의 충돌
- 5) 풍부한 자금 확보

1) ‘지리적 위치와 정부의 국경영토 통제능력의 부족’의 경우는 테러리즘의 원인으로 국가실패, 특히 ‘국경과 영토의 통제능력의 약화’를 가정한 것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국가실패의 문제가 가중된 특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실패지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ext{테러발생 건수}(gtd_sum) = \text{전년도 테러발생 건수}(gtd_lag) + \text{전년도 국가실패지수}(fsi_lag)$$

테러발생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를 정확히 모를 경우 전년도 테러발생 건수가 금년도 테러발생 건수를 예측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생략된(omitted)’ 독립

9) 이들 요인들은 원래 사하라 이남 지역의 극단주의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그 이외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극단주의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가 가능하여 보인다. 김동석, “아프리카 극단주의 무장활동에 대한 분석과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9.8.

변수들을 대신해서 전년도 테러발생 건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으며 국가실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년도 국가실패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
. reg gtd_sum gtd_lag fsi_lag
```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377		
-----+-----				F(2, 1374) = 6531.68		
Model	57751198.5	2	28875599.3	Prob > F = 0.0000		
Residual	6074254.71	1374	4420.85496	R-squared = 0.9048		
-----+-----				Adj R-squared = 0.9047		
Total	63825453.2	1376	46384.7771	Root MSE = 66.49		

g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						
gtd_lag	1.23746	.0110999	111.48	0.000	1.215685	1.259234
fsi_lag	.1072239	.0788414	1.36	0.174	-.0474387	.2618865
_cons	-5.311141	5.811473	-0.91	0.361	-16.71146	6.08918

전년도 테러발생 건수(gtd_lag)가 포함될 경우 R²는 높게나왔지만 전년도 국가실패지수(fsi_lag)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속변수가 독립변수로 포함될 경우에 이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테러리즘을 발생시키는 ‘국가실패’는 총체적인 성격의 국가실패지수보다는 국가실패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가 더 잘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국경과 영토의 통제능력 약화’와 관련이 깊은 다음의 지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ps**: 공공 서비스의 점진적인 악화 (Progressiv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 **ei**: 외국 또는 외부 정치행위자의 개입(Intervention of Other States or External Political Actors)

$$\text{테러발생 건수}(gtd_sum) = \text{전년도 테러발생 건수}(gtd_lag) + ps_lag + ei_lag$$

```
. reg gtd_sum gtd_lag ps_lag ei_lag
```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377		
-----+-----				F(3, 1373) = 4358.26		
Model	57759997.4	3	19253332.5	Prob > F = 0.0000		
Residual	6065455.84	1373	4417.6663	R-squared = 0.9050		
-----+-----				Adj R-squared = 0.9048		
Total	63825453.2	1376	46384.7771	Root MSE = 66.466		

gtd_sum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td_lag	1.236658	.0110584	111.83	0.000	1.214965	1.258351
ps_lag	-1.056548	1.239142	-0.85	0.394	-3.487365	1.374269
ei_lag	2.341434	1.325966	1.77	0.078	-.2597045	4.942573
_cons	-5.201812	5.184525	-1.00	0.316	-15.37226	4.968636

전년도 테러발생 건수는 기대한대로 유의미하게 나왔고 외국/외부 행위자의 개입을 나타내는 변수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1)의 가설은 약식으로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결과가 나왔다.

2) ‘급진적 이슬람의 유입과 소외된 종족의 불만’ 가설의 경우 국가실패지수 데이터에 이슬람의 유입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진적 이슬람의 유입’에 관한 부분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소외된 종족의 불만’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지표가 어느 정도 관련을 갖는다.¹⁰⁾

- **gg**: 복수를 피하는 집단적 불만의 유산(Legacy of Vengeance-Seeking Group Grievance or Group Paranoia)

$$\text{테러발생 건수}(gtd_sum) = \text{전년도 테러발생 건수}(gtd_lag) + gg_lag$$

. reg gtd_sum gtd_lag gg_lag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377
Model	57751890.5	2	28875945.3	F(2, 1374) =	6532.50
Residual	6073562.72	1374	4420.35132	Prob > F =	0.0000
Total	63825453.2	1376	46384.7771	R-squared =	0.9048
				Adj R-squared =	0.9047
				Root MSE =	66.486

gtd_sum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gtd_lag	1.235958	.0113409	108.98	0.000	1.213711	1.258205
gg_lag	1.326707	.9366396	1.42	0.157	-.5106917	3.164105
_cons	-5.518171	5.7415	-0.96	0.337	-16.78123	5.744883

3) ‘기후 변화’ 가설의 경우 국가실패지수 데이터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 직접적인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기후변화가 테러리즘을 낳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의

10) “급진적 이슬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불만을 가진 종족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그들을 무장투쟁의 길로 유도함. 즉 급진적 이슬람의 유입과 소외된 종족의 불만의 상호작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투쟁의 확산을 초래함.” (p. 8) 추후 연구에서는 급진적 이슬람과 소외된 종족이 상호작용(interactive term)의 형태로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화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¹¹⁾

- *pe*: 급격하거나 심각한 경제적 쇠락(Sharp and/or Severe Economic Decline)

$$\text{테러발생 건수}(gtd_sum) = \text{전년도 테러발생 건수}(gtd_lag) + pe_lag$$

. reg gtd_sum gtd_lag pe_lag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377		
-----+-----				F(2, 1374) = 6528.42		
Model	57748460.2	2	28874230.1	Prob > F = 0.0000		
Residual	6076993.08	1374	4422.84795	R-squared = 0.9048		
-----+-----				Adj R-squared = 0.9046		
Total	63825453.2	1376	46384.7771	Root MSE = 66.504		

gtd_sum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						
gtd_lag	1.239518	.0109024	113.69	0.000	1.218131	1.260905
pe_lag	1.027149	.9262964	1.11	0.268	-.789959	2.844257
_cons	3.672027	5.594793	-0.66	0.512	-14.64729	7.303233

전년도 테러발생 건수는 또 다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지만 경제적 쇠락은 테러리즘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4) ‘문명의 충돌’과 5) ‘풍부한 자금 확보’의 가설은 추가적 데이터의 수집이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한 설명들로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11) “기후변화는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활동을 촉진시킴” (p. 9)

<참고문헌>

가. Datasets

Foreign Policy and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START), *Global Terrorism Database*

나. 국문자료

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수출입은행, 각년호

한인택, 『아시아 지역 국가위험 분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
2010

한인택, “최근 중동지역 국가위험 분석,”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 GCC
연구소 공동주최 회의 발제문, 2013.

한인택, “테러의 '소프트 타깃' 재외공관,” *JPI PeaceNet*, 2016.8.5.

다. 국가실패 관련 해외자료

Carment, David, Yiagadeesen Samy, and Stewart Prest,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An Empirical Analysi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349–373.

Chauvet, Lisa, and Paul Collier, "What are the Preconditions for Turnarounds in Failing Sta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332–348.

Goldstone, Jack, "Pathways to State Failur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285–296.

Goldstone, Jack,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dels in Forecasts of Instability," *U.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No. 204, March 2008

Goldstone, Jack, Robert Bates, Ted Robert Gurr, Michael Lustik, Monty G. Marshall, Jay Ulfelder, and Mark Woodward, "A Global Forecasting Model of Political Instability,"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Phase V Findings*, 2005

Gourevitch, Alex, "The Myth of the Failed State: Intervention and Third World Sovereign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Honolulu, Hawaii, Mar 05, 2005

- Helman, G. B. and S. R. Ratner, "Saving Failed States," *Foreign Policy*, 89 31.
- Kaplan, Robert, "The Coming Anarchy," *Atlantic Monthly*, 1994
- Patrick, Stewart, "Weak States and Global Threats: Fact or Fic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6, pp. 27–53.
- Prest, Stewart, John Gazo, and David Carment, "Working ou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Fragile States—The British, American and German Experience," Paper presented on the conference on Canada's policy towards fragile, failed and dangerous states, November 25, 2005.
- Rice, Susan & Patrick Steward,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2008
- USAID,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 Wyler, Liana Sun, "Weak and Failing States: Evolving Security Threa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라. 테러리즘 관련 해외자료 (Global Terrorism Database 활용)

- Borooah, Vani K. 2009. "Terrorist Incidents in India, 1998–2004: A Quantitative Analysis of Fatality Rates."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21:476–498.
- Chang, Charles and Ying Ying Zeng. 2011. "Impact of Terrorism on Hospitality Stocks and the Role of Investor Sentiment." *Cornell Hospitality Quarterly* 52:165–175.
- Choi, Seung-Whan. 2010. "Fighting Terrorism through the Rule of Law?"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4:940–966.
- Drakos, Konstantinos. 2010. "Terrorism Activity, Investor Sentiment, and Stock Returns."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19:128–135.
- Dugan, Laura, and Gary LaFree, Alex R. Piquero. 2005. "Testing a Rational Choice Model of Airline Hijackings." *Criminology* 43:1031–1065.
- Enders, Walter, Todd Sandler, and Khrsrav Gaibulloev. 2011. "Domestic Versus Transnational Terrorism: Data, Decomposition, and Dynamics." *Journal of Peace Research* 48:319–337.

- Fahey, Susan, Gary LaFree, Laura Dugan, and Alex R. Piquero. Forthcoming. "A Situational Model for Distinguishing Terrorist and Non-Terrorist Aerial Hijackings, 1948–2007." *Justice Quarterly*.
- Gaibullov, Khusrav, and Todd Sandler. 2011. "The Adverse Effect of Transnational and Domestic Terrorism on Growth in Africa." *Journal of Peace Research* 48:355–371.
- Greenbaum, Robert, Laura Dugan and Gary LaFree. 2007. "The Impact of Terrorism on Italian Employment and Business Activity." *Urban Studies* 44:1093–1108.
- Kis-Katos, Krisztina, Helge Liebert, and Gunther G. Schulze. Forthcoming. "On the Origi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Kollias, Christos, Petros Messus, Nikolaos Mylonidis, and Suzanna-Maria Paleologou 2009 "Terrorism and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spending in Greece: Policy implications of some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Policy Modeling* 31: 788–802
- LaFree, Gary. 2009. Criminology's third war: Special issue on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8:431–444.
- LaFree, Gary and Laura Dugan. 2009. Research on terrorism and countering terrorism. In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M. Tonry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8: 413–477.
- LaFree, Gary, Laura Dugan, and Derrick Franke. 2005. "The Interplay between Terrorism, Nonstate Actor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 Exploration of the Pinkerton Databas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7:155–158.
- LaFree, Gary and Laura Dugan. 2007. "Introducing 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19:181–204.
- LaFree, Gary, Laura Dugan and Susan Fahey. 2007. "Global Terrorism and Failed States," In *Peace and Conflict*, J. Joseph Hewitt, Jonathan Wilkenfeld, and Ted Robert Gurr (eds.). Boulder: Paradigm Publishers.
- LaFree, Gary and Laura Dugan. 2009. "Tracking Global Terrorism, 1970–2004." In *To Protect and to Serve: Police and Policing in an Age of Terrorism*, David Weisburd, Thomas Feucht, Idit Hakimi,

- Lois Mock and Simon Perry (eds.). New York: Springer.
- LaFree, Gary, Laura Dugan and Raven Korte. 2009. "The Impact of British Counter Terrorist Strategies on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Comparing Deterrence and Backlash Models," *Criminology* 47:501–530.
- LaFree, Gary, Laura Duga, Min Xie, and Piyusah Singh. Forthcoming.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Terrorist Attacks by ETA 1970–2007."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 LaFree, Gary, Nancy Morris and Laura Dugan. 2010. "Cross–National Patterns of Terrorism: Comparing Trajectories for Total, Attributed and Fatal Attacks, 1970 to 2006."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0:622–649.
- LaFree, Gary, Nancy Morris, Laura Dugan and Susan Fahey. 2006. "Identifying Global Terrorist Hot Spots." In *Tangled Roots: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Genesis of Terrorism*, ed. Jeffery Victoroff. Amsterdam: IOS Press.
- LaFree, Gary, Sue–Ming Yang and Martha Crenshaw. 2009. "Trajectories of Terrorism: Attack Patterns of Foreign Groups that have targeted the United States, 1970 to 2004."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8:445–473.
- Memon, Nasrullah, Uffe Kock Wiil, Reda Alhaji, Claus Atzenbeck, and Nicholas Harkiolakis. 2011 "Harvesting covert networks: A case study of the iMiner database." *Int. J. Networking and Virtual Organizations* 8:52–74.
- Piazza, James and James Igoe Walsh 2010 "Physical Integrity Rights and Terrorism"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3: 411–414
- Wang, Xiaoyu, Erin Miller, Kathleen Smarick, William Ribarsky, and Remco Chang. 2008. "Investigative Visual Analysis of Global Terrorism." *Computer Graphics Forum* 27: 919–926.
- Webb, Jennifer J., and Susan L. Cutter. 2009. "The Geography of U.S. Terrorist Incidents, 1970–2004." *Terrorism & Political Violence* 21:428–449
- Young, Joseph K., and Laura Dugan. 2011. "Veto Players and Terror." *Journal of Peace Research* 48:19–33.